

2026학년도 동계 초·중등 교사연수 ‘AI로 그리는 음악교육의 미래’ 운영 보고

2026 Winter Elementary School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raining [The Future of Music Education with AI] Operation Report

김영후* · 한초롱**

Younghoo Kim · Chorong Han

한국음악교육학회는 2026년 1월 13일(화)부터 1월 15일(목)까지 3일간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2026학년도 동계 초·중등 교사연수 ‘AI로 그리는 음악교육의 미래’를 운영하였다. 본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음악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초·중등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음악 수업에 교육적으로 통합하는 실제적 방안을 함께 탐색하고 현장 적용 중심의 수업 설계 역량을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전국 각지에서 40명의 초·중등 음악교사가 참여하였으며, 100여 명이 넘는 지원으로 하루 만에 선착순 마감되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반 음악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를 보여주는 결과였다. 또한 연수를 통해 신규 평생회원이 확보되는 등 학회의 홍보와 저변이 확대되었고, 연구와 현장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학회가 지향해야 할 연구와 실천의 방향을 현장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음악교육의 미래를 공동으로 만들어가야 함을 확인하게 하였다.

최근 음악교육은 기능 중심 활동을 넘어 창의적 표현과 탐구, 협력적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음악 창작·감상·연주 활동 전반의 교수학습 구조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수는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정과 음악적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기술을 해석하고 수업 경험으로 조직하는 교육적 접근을 지향하였다. 특히 교사를 기술의 사용자가 아닌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주체로 바라보며 강의와 실습을 구성하였다.

* Teacher, Gyeongin Middle School

** Teacher, Seongnam Yangji Elementary School

연수는 총 15시간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조 강연, 주제 강의, 사례 발표, 실습 워크숍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강의는 아래와 같다.

- AI시대 음악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사의 역할(민경훈,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 음악정보학은 어떻게 음악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까(정다샘, 서강대학교 교수)
- 블록코딩을 활용한 국악 수업 확장(김경태,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 시김새 중심 청음 전략 기반 국악 감상 수업(김민지, 서강대학교 박사)
- 디지털 선도학교 및 AIDT 연구학교 운영 사례(박송희, 이수중학교 교사)
- AI 기반 음악 창작 수업 설계(전상진, 광희중학교 교사)
- 생성형 AI 음악 콘텐츠 제작 시연(심영섭,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연구이사)
- AI 창작과 VR 연주 활동 음악교실 사례(신기호,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 뇌과학 관점에서 본 음악 학습의 특성(이경면, KAIST 교수)
- AI 기반 음악 창작 수업 모형 및 적용 사례(박은비, 경남대학교 교수)

먼저 민경훈 명예교수님(한국교원대학교)께서는 ‘AI시대 음악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사의 역할’ 기조 강연을 통해 음악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경험 설계자로 확장되고 있음을 깊이 있게 제시해 주셨다.

이어 정다샘 교수님(서강대학교)께서는 ‘음악정보학은 어떻게 음악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까’ 강연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의 참여와 탐구를 이끄는 수업 설계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셨다.

국악 영역에서는 김경태 교수님(춘천교육대학교)께서 블록코딩을 활용한 국악 수업 확장 가능성을 소개하시며 전통 음악과 디지털 매체의 융합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김민지 박사님(서강대학교)께서는 시김새 중심 청음 전략을 바탕으로 한 감상 활동을 통해 국악 감상 수업의 새로운 접근을 안내해 주셨다.

박송희 선생님(이수중학교)께서는 디지털 선도학교 및 AIDT 연구학교 운영 경험을 나누어 주시며 교육과정과 기술 활용을 연결하는 실제적인 학교 운영 모델을 공유해 주셨다.

창작 영역에서는 전상진 선생님(광희중학교)께서 AI를 활용한 음악 수업 설계 사례를 발표하여 학생의 창의적 표현을 확장하는 수업 구조를 소개해 주셨다.

심영섭 연구이사님(크리에이티브 마인드)께서는 생성형 AI 기반 음악 콘텐츠 제작 과정을 시연하시며 교사가 수업 자료의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국악 연구가 기술과 데이터셋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악 문법의 알고리즘적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신기호 박사님(한국교원대학교)께서는 AI 창작에서 VR 연주 활동까지 이어지는 음악교실 사례를 발표하시며 기술 활용이 학생 참여 경험을 풍부하게 확장할 수 있음을 제시해 주셨다.

이경면 교수님(KAIST)께서는 뇌과학 관점에서 음악 학습의 특성을 설명하시며 음악 활동이 인지 발달과 정서 형성에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과학적으로 풀어 주셨다.

박은비 교수님(경남대학교)께서는 AI 기반 음악 창작 수업 모형과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연수 내용을 수업 설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셨다.

본 연수의 특징은 개별 도구의 사용법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과정, 음악적 개념 이해, 학습 경험 설계를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 있다. 참여 교사들은 창작과 감상을 연결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직접 설계하며 학생 중심 수업 구조를 구체화하였고, 다양한 결과물을 함께 나누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 수업이 단순한 기술 활동이 아니라 음악적 사고를 확장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수 과정에서는 대학 연구자, 학교 교사, 콘텐츠 개발자가 함께 참여하여 음악교육의 실제적 변화를 공동으로 모색하였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찰하는 과정은 교사 간 협력적 학습 공동체 형성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연수 이후에도 참가 교사 간 수업 자료 공유와 학회 가입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본 연수를 통해 학회의 저변이 확산되는 선순환적 연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수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중앙대학교 RISE사업단과 최진호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해당 사업비 지원을 통해 본 연수를 참가비 없이 운영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현장 교사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여 배움의 기회를 나눌 수 있었다. 연수 장소를 협조해 주신 경인교육대학교 정주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조 강연을 맡아 주신 민경훈 명예교수님과 정다샘 교수님, 그리고 김경태 교수님, 김민지 박사님, 박송희 선생님, 전상진 선생님, 심영섭 연구이사님, 신기호 박사님, 이경면 교수님, 박은비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강사진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연수 준비와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신 추상희 총무님과 학회 임원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3일간의 연수는 음악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고 교육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함께 배우고 나눈 이 각 교실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살아 있는 음악 수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